

장애인의 결혼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Marri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1. 문제제기

결혼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하나의 제도화된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과정이다. 결혼에 따른 일련의 가족생활주기를 통하여 인간은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사회적 편견에 의해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결혼에서조차도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은 장애인의 신체적 부자유함으로 인해 겪는 일차적 장애로 파생되는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의 방법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이란 진정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 또는 위축된 자아감을 되찾는 정신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며, 직업재활과 함께 장애인의 전인재활에 지대한



김 성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재활의 목표는 가족에서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되어 그것이 사회와 연관되어 발전해 나감으로서 장애인이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가치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사회통합의 기본이 되는 가족 생활에 적응함으로써 그 활동의 장을 사회, 국가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²⁾이며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면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직업재활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결혼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심각하고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결혼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분석

본 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방문하여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총 5,466명의 장애인이 조사되었고, 그 중 장애인의 결혼실태 분석을 위해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5,258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결혼 여부

장애인 결혼관련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84.6%가 결혼에 대한 욕구

1) 조수동, 「장애인 결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재활연구』, 장애인재활협회, 2001.
 2) 2000년과 200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수는 2000년에 145만명, 2005년에는 214만명인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 비해 약 69만명이 증가하였음.

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³⁾, 실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장애인의 87.1%가 결혼을 하였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기타상태 장애인은 0.1%였다. 성별로는 여성장애인의 결혼비율(91.0%)이 남성장애인(84.5%)보다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결혼 정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는데, 특히 장루·요루, 호흡기장애의 결혼정도가 97%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발달장애(89.8%), 정신지체(70.4%)가 가장 높았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정신지체와 정신장애가 각각 0.5%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연령은 전체적으로 20~29세의 연령대(68.7%)에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9세 연령대(16.8%), 30~39세 연령대(13.4%)의 순이었다. 그외 50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도 0.1%였다.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장애인의 경우 약 26세, 여성장애인은 약 21세였다.

표 1. 18세 이상 장애인의 성별 결혼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84.5	91.0	87.1
아니오	15.5	8.9	12.8
기타(미혼모/부)	0.1	0.1	0.1
계(N)	100.0(2,576)	100.0(664)	100.0(5,258)

표 2. 18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결혼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0.0	91.0	91.8	94.3	83.6	29.2	10.2	51.7	85.0	96.1	97.6	96.7	83.1	97.7	55.5	87.1
아니오	9.0	9.0	8.0	5.7	16.4	70.4	89.8	47.8	15.0	3.9	2.4	3.3	16.9	2.3	44.5	12.8
기타(미혼모/부)	0.1	-	0.2	-	-	-	-	0.5	-	-	-	-	-	-	-	0.1
계 (N)	100.0 (2,576)	100.0 (664)	100.0 (559)	100.0 (582)	100.0 (44)	100.0 (216)	100.0 (11)	100.0 (201)	100.0 (106)	100.0 (102)	100.0 (77)	100.0 (34)	100.0 (11)	100.0 (40)	100.0 (35)	100.0 (5,258)

3) 조수동, 위의 책.

결혼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건강·장애 문제 때문에' (50%), '결혼 비적령기' (18.9%),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2%),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6.8%)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장애상태라는 것 자체와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결혼을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	11.2
결혼생활과 직장일 동시수행 어려움	0.9
결혼 비적령기	18.9
결혼시기를 놓쳐서	4.7
건강·장애문제	50.0
결혼생각이 없어서	6.7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6.8
기타	0.8
계(N)	100.0(664)

2) 결혼장애인의 배우자

결혼한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의 장애여부를 알아보았는데, 장애가 없는 경우가 86.7%, 장애가 있는 경우는 13.3%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의 45.5%, 간질장애의 32.3%가 배우자도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부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이었다.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장애유형은 지체장애(52.1%), 청각장애(13.9%), 시각장애(11.0%)의 순으로 많았다.

3) 결혼장애인의 자녀

결혼한 장애인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94.8%가 자녀가 있었으나,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26.5%)와 정신장애(13.7%)등 정신적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⁴⁾. 즉, 장애인들의 55% 정도는 자녀가 '2~3명' 있는 것으로 볼

표 4. 결혼장애인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12.6	10.7	12.4	17.2	20.0	45.5	-	19.6	5.9	15.7	7.6	11.4	13.5	8.8	32.3	13.3
아니오	87.4	89.3	87.6	82.8	80.0	54.5	100.0	80.4	94.1	84.3	92.4	88.6	86.5	91.2	67.7	8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N)	(1,759)	(424)	(362)	(342)	(25)	(45)	(1)	(53)	(70)	(73)	(58)	(26)	(6)	(34)	(12)	(3,290)

표 5. 결혼장애인의 장애자녀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6.4	8.2	8.9	9.0	5.4	30.2	-	5.5	4.6	10.5	8.4	6.3	-	7.6	-	7.5
아니오	93.6	91.8	91.1	91.0	94.6	69.8	100.0	94.5	95.4	89.5	91.6	93.7	100.0	92.4	100.0	9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07)	(588)	(491)	(531)	(34)	(46)	(1)	(88)	(86)	(96)	(72)	(32)	(8)	(39)	(17)	(4,336)

수 있다. 자녀 중 장애자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7.5%의 장애인이 장애자녀가 있었는데,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지체(30.2%), 심장장애(10.5%)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자녀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44.5%), 정신지체(14.3%), 정신장애(9.3%)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 '지체장애' 자녀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정신지체의 경우 '정신지체' (75.0%)가, 정신장애의 경우도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정신지체 자녀의 장애유형이 '정신지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0%로 매우 높았다.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은 '2급' (21.3%), '6급' (20.4%), '3급' (18.3%)의 순으로⁵⁾, 전체적으로 중증이 38.6%, 중등도가 36.4%, 그리고 경증이

4) 자녀수는 '2명' (32.4%), '3명' (21.8%), '5~9명' (19.2%)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가 2명이 32.4%, 3명이 21.8%, 5~9명이 19.2%, 4명이 14.2%, 1명이 12.2%, 10명 이상이 0.1%인 것으로 나타남.

5)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은 2급(21.3%), 6급(20.4%), 3급(18.0%), 1급(17.3%), 5급(14.6%), 4급(8.4%)의 순임.

34.6%였다.

결혼장애인 중 자녀가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43.7%), '기타' (19.8%), '건강·장애문제 때문에' (10.7%)의 순이었다. 그 외 '친정·시댁식구들이 원하지 않아서' (1.4%),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4.3%) 등 본인의 의지 보다는 주위 사람들 즉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가 약 5.7% 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 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2.9%였다.

표 6. 결혼장애인 중 자녀가 없는 경우 그 이유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43.7
학업·직장·경제적 이유로 임신 연기	10.0
건강·장애문제때문에	10.7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	2.9
자녀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7.1
배우자가 원치 않아서	4.3
친정·시댁식구들이 원치 않아서	1.4
기타	19.8
계(N)	100.0(230)

4) 장애와 결혼생활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38.1%), '매우 지장있다' (23.4%), '약간 지장있다' (21.1%), '별로 지장없다' (17.4%)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이 없다' (55.5%)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간 더 높았다. 반면,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85.0%), 언어장애(84.5%), 정신장애인(73.5%)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있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표 7.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지장있음	19.0	27.7	20.2	28.3	57.7	61.7	-	44.2	28.9	32.5	36.1	36.7	-	14.4	43.8	23.4
약간 지장있음	19.9	19.7	23.5	22.5	26.8	23.3	-	29.3	20.8	25.1	20.4	17.2	15.3	25.0	20.0	21.1
별로 지장없음	18.9	12.3	15.9	19.1	5.0	5.0	-	2.8	16.7	18.2	12.2	16.4	30.5	-	12.7	17.4
전혀 지장없음	42.1	40.3	40.4	30.1	10.5	10.0	100.0	0.9	33.6	24.2	31.2	29.8	54.2	60.6	23.5	3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03)	(147)	(300)	(248)	(19)	(40)	(1)	(72)	(42)	(34)	(33)	(17)	(7)	(12)	(16)	(2,291)

현재 17세 이하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다' (64.5%), '기타(자녀와 동행하는 여가생활의 어려움, 자녀가 본인의 장애를 알게 될까봐 두려움)' (12.7%), '양육과 관련된 정보 부족' (8.3%),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8%)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녀 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렵다' (66.5%), '기타(자녀와의 대화부족)' (12.7%), '없음' (9.8%),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3.3%)의 순으로 많았다.

표 8. 결혼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교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비율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비율
없음	64.5	없음	9.8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8	학습지도	0.9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3.4	학교 갈 때 통행지도	1.0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부족	2.5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66.5
양육할 충분한 시간부족	1.6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3.3
양육과 관련된 정보부족	8.2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0.8
장애·건강문제	2.7	자녀의 부모차별	4.3
이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0.5	학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	0.7
기타	12.7	기타	12.7
계(N)	100.0(912)	계(N)	100.0(828)

집안에서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주로 하고 있다' (34.0%),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33.8%), '가사일을 가끔 도와준다' (32.3%)의 순으로 나타나, 가사일의 참여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참여하고 있다'는 장애인이 66.3%가 되었다. 가사일을 많이 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경우 그 이유가 장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54.5%가 '장애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뇌병변장애, 정신적 장애인과 내부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가사불참 정도가 많았다.

표 9. 결혼 장애인의 집안에서의 가사일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주로 본인이 함	34.0
가끔 도와줌	32.2
전혀 하지 않음	33.8
계(N)	100.0(4,459)

5)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한 장애인들의 현재 생활 중 가족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79.4%의 장애인이, 결혼생활에서는 86.4%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족과의 관계 및 결혼생활에서 모두 만족 정도가 높았다.

표 10. 결혼장애인의 가족과의 관계 및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
매우 만족	24.3	30.8
대체로 만족	55.1	55.6
약간 불만족	14.1	11.3
매우 불만족	6.5	2.4
계 (N)	100.0(4,249)	100.0(2,819)

3. 정책과제

1) 장애인 결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

장애인의 결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다. 즉, 장애에 대한 비과학적이거나 편향적인 선입견은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는 각종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결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인 시각을 일깨우고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민계몽 및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장애인 결혼에 대한 장애인의 지지와 관심

장애인들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본인의 '장애때문'이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장애인 결혼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장애인 자신의 결혼에 대한 자신감부족이 주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함으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결혼 및 결혼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장애인 결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는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결혼에 대한 꿈과 용기를 가지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장애인부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도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즉, 장애인부부의 비율이 약 13%가 되었는데, 이들 장애인부부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으나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통해 사회적 통

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부부가 보다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결혼생활에 부딪치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결혼과 관련된 교육이나 부부갈등 등의 고민상담, 성교육과 가족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문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장애인 결혼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4)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서비스 지원

장애인들이 결혼 하지 않는 이유나, 현재 자녀가 없는 이유, 그리고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모두 '건강·장애문제'가 중요 요인이었다. 즉,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애상태와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들의 결혼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국가나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 중 생계보장 다음으로 의료보장을 지적한 것에서도 뒷바침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원만한 결혼생활과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발생 초 응급진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재활시스템을 갖추어 현재의 미흡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5) 장애인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마련

실태조사 결과 약 45% 장애인들은 본인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외 자녀의 양육시, 교육시, 그리고 가사일에 참여하는데 주 애로사항이었다. 따라서 결혼과 관련하여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사지원 서비스, 가사활동보조도우미, 자녀 양육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도의 확대 실시, 장애인 자녀 보육시설 우선이용보장 등이 요청된다. 